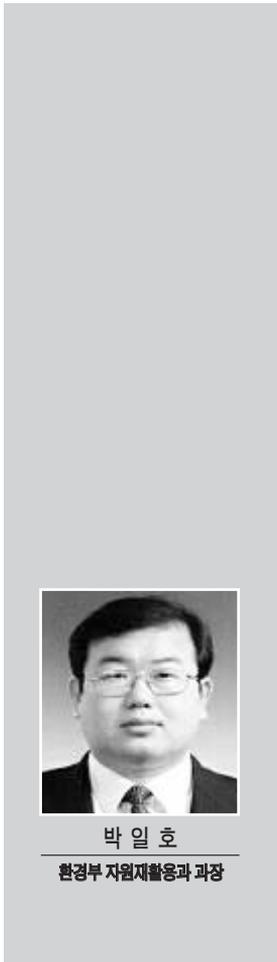


EPR 제도 성과 및 포장업계 역할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nd role of Packaging Industry



박 일 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처음에는 꽤 생소한 용어였으나 이제는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생산자들과 국민들에게 친숙한 정책이 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제조·유통 및 폐기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식음료, 세제류, 가전품, 농수산물 제조 및 유통업체 등에서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등 포장용기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를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생산·재활용되도록 하는데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EPR 제도는 기존의 재활용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처음에는 생산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보다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사회로 전환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즉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PR 제도에서 정한 생산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캔, 병, PET, PP, PE병 등 각종 용기 포장의 경량화 및 포장재질의 변화에 의한 경량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용기제조에 있어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제품의 수송 시에도 SOx, NOx 등의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어 폐기물의 대기부문 등 다른 부문의 환경개선효과와 연결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3년간(2003~2005년) 시행 결과, 재활용율은 매년 7~12% 증가하고 있으며, 총 재활용량은 3,400천톤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2,439억원에 이른다.

2003년 EPR 제도 시행 이후 대상품목을 15개에서 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이동전화단말기, 사무용기기 등을 추가하여 '06년 현재 2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재활용량은 2002년 폐기물예치금제도 운영시에 달성했던 938천톤보다 30.9%(290천톤) 증가한 1,228천톤으로 EPR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의 경우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는 매년 재활용 실적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02년 재활용 실적은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종이팩 순으로 높았으나, '05년에는 유리병, 합성수지, 금속캔, 종이팩 순으로 변화했으며 합성수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합성수지 분야에서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확대 및 기술개발 등으로 재활용량 확대에 기인한다.

EPR 대상품목 중 제품류를 제외한 국민 1인당 포장재의 재활용량을 분석해 보면 '05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출고량은 24.23kg의 64%인 16.08kg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10%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생산자들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한 정책참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소비자,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수집운반업자 그리고 정부 등 각 주체별 노력과 각 주체간에 원활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생산자들의 노력과 함께 새로운 환경 수요에 따른 포장재의 개발·보급 등 포장업계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끝으로 포장재 생산업체가 값싸고 안전한 포장재를 공급해야 하는 주요 역할 외에 EPR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단위생산당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드는 포장재의 생산, 포장 기능성이 양호하고 자원 사용량이 적은 포장재의 선택 그리고 사용 후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저렴한 포장재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포장폐기물이 최소화되는 자원순환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